

Contents

권두언	1
설문 결과 보고	2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3
학회지 발간	4
회칙개정	5
2019년 상반기 일정	5
회원동정	6
신간소개	7
원고모집	10
공지사항	11
회비납부	12

발행일 2018.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서상범

권두언

이명현(고려대학교)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일을 겪었고, 깊은 슬픔과 큰 기쁨이 교차했던 한 해라서 그런지 연말을 맞는 심경이 좀 남다른데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분께, 그리고 제 주변의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우리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은 저와 최진희 총무이사님 포함한 노어노문학과 89학번들의 입학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89들이랑 우리 학회는 러시아문학 연구에 있어 동기동창인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원에 입학한 뒤로 지금까지 한국러시아문학회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학회에 몸담았던 짧지 않았던 세월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초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석사 과정 때부터 저는 우리 학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학회에서는 RUSISTIKA라는 제목의 무크지를 발간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호별 기획된 주제로 묶이는 러시아문학에 관한 논문들과 시 혹은 소설이 번역되어 실렸는데, 학회원들의 글뿐만 아니라 <Новый мир>를 비롯한 러시아의 이른바 ‘두꺼운 잡지’에 발표된 평론들도 번역되어 소개되곤 했습니다.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겠다는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와, 러시아어 원서 독해력이 한참 모자란 주제에 그 어려운 논문과 평론들을 번역하는 일에 일손을 보태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이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털이 다 쭈뼛쭈뼛해집니다. 그런데 실은 엄청난 오역을 남발하면서도 저는 그때 RUSISTIKA를 편집하는 일이 참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박재만 선배님과 고인이 되신 김철균 선배님, 심성보, 이규환, 이형숙, 김혜란 선배님들이 그때 RUSISTIKA 편집일을 도맡아 하시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러시아어 독해력을 우러르며, 그 곁에서 비슷한 책 훑어 내면서 열심히 꼬적이곤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학회 일을 도왔던 황성주, 이장욱 선배와 동기 홍지인 박사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학회 편집일이 끝나면, 선배들은 늘 맛난 술과 안주를 사주시곤 했는데요, 그때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떠들고 고장부렸던 것 또한 잊히지 않는 부끄러운 추억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학회원들끼리 매년 MT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석사 과정을 마칠 때였고 겨울이었는데, 박형규 교수님과 지금은 노장이 되신 여러 학회원들이 참석하신 MT에 저도 따라갔었습니다. MT 전용 숙박시설이었던 우이동 ‘사슴농장’의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모두 같이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소는 ‘사슴’과는 전혀 상관 없는,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회원들은 국내 러시아문학 연구사를 정리하고 당대 학계의 과제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강은 선생님께서 기초 발제를 하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발제자와 회원들 간에 오갔던 논쟁의 서슬 퍼런 인상만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그보다 더 살벌했던 것은 학술회의 뒤에 벌어진 화투장의 대혈전이

었습니다. 태어나서 화투가 그토록 스킬 있는 장르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종목은 ‘섞다’였는데, 회의 때 발제자였던 이강은 선생님이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회원들끼리 우르르 목욕탕에 가시던 중 들려왔던 승자의 함성이 귓전을 맴돕니다. “우이대 첩이라고 들어봤어?”

그날 늦잠에서 깨어난 저는 눈앞의 광경에 아연했습니다. 새벽까지 혈투에 몰입하셨던 회원들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 코펠에 흰 쌀밥을 얹혀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던 겁니다. 박형규 교수님은 투명한 글라스잔으로 맑은 소주를 들이켜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찾아뵈었을 때도 박교수님은 건강하고 편안한 안색으로 맑은 약주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내년 30주년 기념식 때에도 박교수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축하를 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С Новым годо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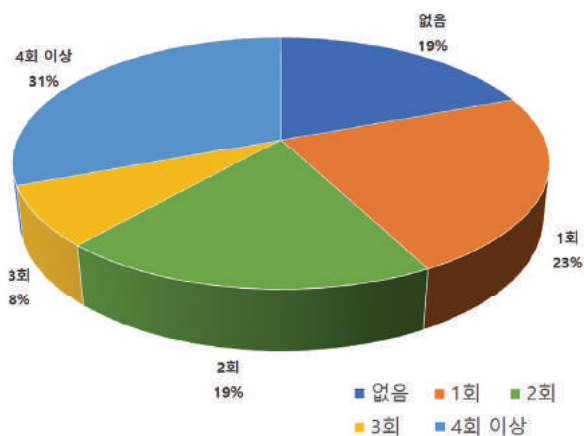


2018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원 대상 만족도 설문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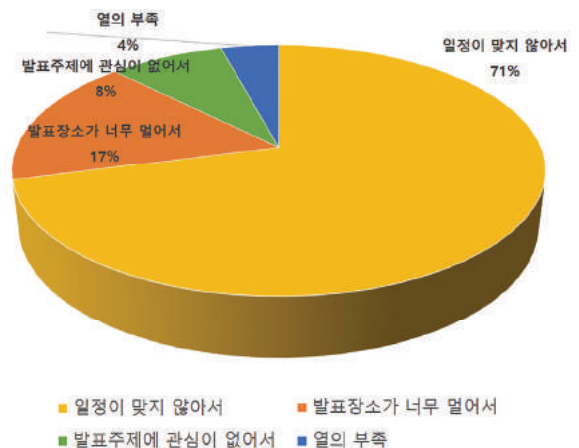
▶ 시행: 2018년 8월 21일 ~ 9월 5일

참여 인원: 26인 (총 회원 수 19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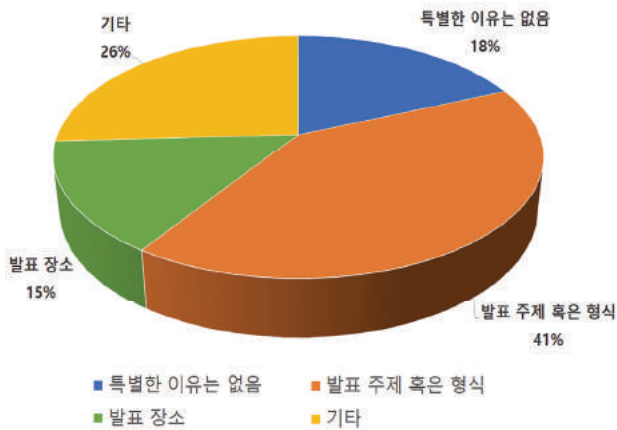
▶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학술대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 러시아문학회 정례학술대회에 불참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최근 참석하셨던 러시아문학회 주관행사 가운데 가장 좋았던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 위 질문과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개최된 ‘고리키 탄생 150주년 기념 집담회’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저자와의 만남, 2017년 하반기 정례학술대회 및 총회 등이 좋았던 행사로 거론되었습니다.

▶ 학회 행사로 희망하는 주제나 형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어문학 관련 희망 주제로는 문학 교육, 20세기 소련 문학과 문화, 최근 러시아 문학 및 출판 동향, 러시아 어문학의 ‘한국화’, 한국어와 러시아어 비교 연구, 문화론 전반, 러시아어권 한국인 문화예술가, 조지아 문화와 예술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 러시아 혹은 국제사회의 당면한 이슈, 유라시아 거대 담론 등과 같은 지역학과 한국과 러시아의 근대 교류사 등과 같은 역사학적 주제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작가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담회 및 집담회와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발표, 심층적인 토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향후 학회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 학회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출판을 기획하고 학술 서적을 발행 하자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학술대회의 지역 개최, 해외 학회 참여와 같은 국제 교류의 활성화, 타 학회와의 연대 강화 및 학회지의 국제화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학문후속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 강구(발표, 연구지원 등) 및 연구 소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문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논문을 유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10월 13일에 제8차 러시아학 관련 국내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러시아성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문학, 문화-통번역, 어학, 사회과학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12월 1일에 제8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

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세계 문학과 국민 문학’이라는 주제 하에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윤새라 회원(울산과기원)이 사회를 맡아주셨으며, 김수환 회원(한국외대)과 함께 울산과기원 국어국문학과 이재연 선생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두 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현아 회원(고려대)이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 교육 현황 및 방향: 러

시아 한글학교 교사 설문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 사회는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토론은 김정일 회원(경북대)이 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슬라브어 비교급 형태의 통시적 발달]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 사회는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토론은 정하경 회원(서울대)이 맡아주셨습니다.



사진 1. 제 8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중 문학 분과의 '세계문학과 국민문학' 집담회

▶ 제 8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의 제 2부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조주관 회원(연세대)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감사패와 논문집 증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준회원 제도의 회칙 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한국러시아문학회 30주년을 기념하는 '30주년 단행본 <러시아문화와 웃음>(가제)발행'이 총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사진 2. 제 8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단체 사진

학회지 발간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2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1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이기주 회원(안양대)의 [『디칸카 근교의 야화』에 내포된 사랑과 선악의 관계]를 비롯한 논문 6편이, 어학 분야에는 임수영 회원(경북대)의 [러시아어에서 인칭/무인칭 개념의 재해석: 소위 '역경 무인칭문'을 중심으로]를 비롯한 논문 3편이, 문화 분야에는 서승현 회원(서강대)의 [러시아 가족형태 다양화와 여성의 역할 문제: 대도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을 중심으로]를 비롯한 논문 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3집이 발간되었으며 특별기고논문을 포함하여 문학, 어학, 지역학, 문화 분야의 논문 12편이 게재되었습니다. 특별기고논문으로는 조주관 회원의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의 몸 기호학]이 수록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최진희 회원(고려대)의 [체르니шев스키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읽기: 삶의 전범으로서의 문학의 문제]를 비롯한 논문 2편이, 어학 분야에는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표준어’와 ‘문학어’의 경계: 용어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에 대한 소고]를 비롯한 논문 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지역학 분야에는 전병국 회원(건국대)의 [탈 소비에트 과정에서 진행된 러시아 이주노동자정책 연구]를 비롯한 논문 2편이, 문화 분야에는 김종민 회원(강남대)

의 [드라마 <안나 카레니나: 브론스키의 회상>에 대한 소고를 비롯한 논문 2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19년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4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1월 15일까지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고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지 사항>란의 논문 투고 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회칙개정

▶ 2018년 12월 1일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칙 중 ‘준회원 제도’와 관련한 회칙이 논의되어 새로운 회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준회원 제도’는 현재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및 학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회 총무국이 발의하였으며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회칙에 따라 2019년부터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하는 석사 및 박

사 과정 생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비(2만원)를 납부한 후 박사 학위 취득 전까지 연회비가 면제 됩니다. 준회원은 일반회원들처럼 학회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며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석사 및 박사 과정생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일정

▶ 2019년부터 상반기에 두 차례 개최되었던 정례학술발표회가 한차례의 정례학술대회로 변경됩니다. 러시아학 연구자들의 연구와 발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상반기 학회를 1회로 변경기로 타 학회와 협의하였으며 일정 또한 함께 공유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학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러시아문학회 제85차 정례학술대회가 2019년 5월 18일(토)에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학술대회는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30주년을 기념으로 하여 한국러시아학회와 경북대학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 될 예정입니다. 학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원동정

▶ 제 84차 정례학술대회에서는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전 회장이었던 조주관 회원(연세대)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해주신 조주관 회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및 논문집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 김선명 회원이 지난 9월 21일 제2회 유라시아여성포럼에서 마뜨비엔꼬 상원의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연방 의회의 주최로 3년에 한번 치러지는 유라시아여성포럼은 유라시아 각국 인사들이 모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각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행사입니다.



▶ 이명현 회원이 2018년 9월 1일부로 고려대학교 신입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명현 회원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알렉산드르 블로끄의 예술적 산문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모스크바 국립 대학에서 블로끄의 서사시를 연구하여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블로끄를 비롯한 러시아 모더니즘 시와 은세기 문화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러시아 근현대 문학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2018년도에 한국러시아문학회에 가입한 신입 회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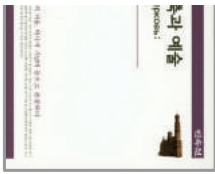
1. 2018년도 4월에 가입한 손재은 회원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2018년도 9월에 가입한 이영준 회원은 고려대학교 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 전공분야는 노어학과 외국어 교육입니다.
3. 2018년도 10월에 가입한 최정은 회원은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톨스토이와 극동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교원 임용, 학위 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국(karusist@naver.com)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신간소개

(2018년 6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1. 『러시아 정교회 건축과 예술』 (김상현 지음, 민속원, 2018년 8월 31일 출간)



본 연구서는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시대예술, 정치적 표상, 공학적인 건축학, 문화적 거울, 역사적 기념비의 차원에서 관찰한다. 더불어 사원 내외부 및 주변과의 관계를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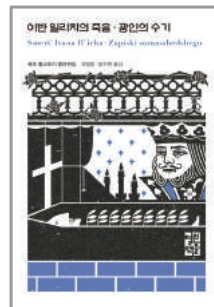
도상학, 건축학, 역사학, 문화, 풍수지리 및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기까지 대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유리 지바고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시인이자 소설가 파스테르나크의 삶이 투영되어 있으며, 자유롭지 않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2. 『온순한 여인/우스운 사람의 꿈』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정아 옮김, 지식출판느 지식, 2018년 8월 30일 출간)



도스토옙스키 만년의 대표적인 단편 <온순한 여인>과 <우스운 사람의 꿈>을 함께 엮었다. 인간의 오만함을 주제로 한 이 두 작품은 한 쌍의 데칼코마니처럼 정반대의 변주를 보여 준다. 지식에 근거한 오만의 결말은 파멸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도스토옙스키 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4. 『이반 일리치의 죽음·광인의 수기』 (레프 톨스토이 지음, 석영중, 정지원 옮김, 열린책들, 2018년 12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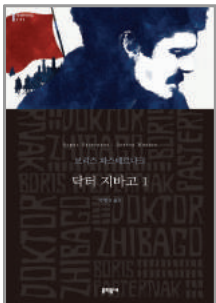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중단편집 <이반 일리치의 죽음·광인의 수기>가 석영중(고려대 교수), 정지원의 번역으로 열린책들에서 출간

되었다. 열린책들에서 출간되는 '세계문학' 시리즈의 238번째 책이다.

1886년에 출간된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중단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성공한 판사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며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어느 날 찾아온 원인 모를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편 '광인의 수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주인공이 광인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기록한 이야기다. 1884년 무렵 집필되어 톨스토이 사후인 1912년에 출간된 미완의 단편으로, 여행 중 작은 마을의 여관방에서 갑작스레 엄습한 우울과 공포에 시달렸던 톨스토이 자신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18년 12월 10일 출간)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시리즈. 1905년 혁명 전야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내전, 1922년



**5. 『시베리아 선택집』 (작자 미상,
엄순천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8년 11월 13일 출간)**

엄순천의 번역으로 시베리아 선택집 중 『축치인 이야기』, 『케레크인 이야기』, 『코랴크인 이야기』, 『니브흐인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시베리아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본 선택집은 지역의 언어, 문화, 주변 민족과의 관계, 사회법칙, 생활, 정신세계, 전통 등이 녹아 있는 설화를 모은 것으로,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설화를 번역해 사라져 가는 그들의 문화를 역사 속에 남긴다.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시베리아 설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의 설화에 조금은 식상해 있는 독자들에게 멀고 먼 시베리아 오지로 떠나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도와

주길 기대한다.



**6.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명현 옮김, 열린책들,
2018년 8월 30일 출간)**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거장 레프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니나』가 이명현 교수의 번역으로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예술적 재능이 한창 절정기에 달했을 때 집필된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부활』과 더불어 그의 3대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소설이다. 표도르 도스토오프스키와 토마스 만, 윌리엄 포크너, 블라지미르 나보코프 등 세계의 대문호들이

이 소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후대의 주요 작가들의 문학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또한 생생한 감정선과 흥미로운 서사 덕에 각종 영화나 뮤지컬로도 수차례 제작되며 많은 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 소설은 고위 공직자의 아내이지만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귀부인 안나의 이야기와, 연모하던 귀족 영애에게 청혼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는 농촌 귀족 지주 레빈의 이야기를 두 축으로 전개된다. 사랑과 결혼,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하여 당대 러시아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그 속의 개인들의 내적인 방황의 궤적들을 놀라울 만치 생생한 필치로 묘사하는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모든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고민들이 집약된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7. 『대위의 딸』 (알렉산드르 세르게
예비치 푸시킨 지음, 이영의 옮김,
새움, 2018년 8월 31일 출간)**

국경 요새로 파견된 신입 청년 장교 그리노프는 임지로 가는 길에 한 부랑자를 만나 선의로 ‘토끼가죽 외투’를 선물한다. 임지에 도착한 그리노프는 허름한 요새에 낙심하지만,

곧 사령관 미로노프 대위의 딸 마리아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료이자 연적인 시바브린과 결투를 벌이다 상처를 입는다. 얼마 뒤 카자크 하층민들의 봉기인 ‘푸가초프의 반란’이 일어나 요새는 점령당하고 대부분의 장교들은 사형을 당한다. 그런데 반란군의 수장 푸가초프는 그리노프가 부임길에 만났던 바로 그 부랑자였고, 그 인연 덕분에 그리노프는 사형을 면하게 된다. 살아남은 그리노프는 귀족의 서약에 따라 푸가초프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이를 용인한 푸가초프의 호의로 요새를 벗어나 정부군에 합류한다. 그리노프와는 반대로 반란군에 투항하여 새로이 요새의 사령관이 된 시바브린은 마리아를 감금한 뒤 자신과 결혼할 것을 종용한다. 그 소식을 들은 그리노프는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요새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데....



8. 『파스테르나크의 작품 세계와 닥터 지바고』 (임혜영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년 6월 30일 출간)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닥터 지바고》에 관한 글이 차지한다. 그만큼 《닥터 지바고》가 작가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작가는 창작 초기인 1910년대부터 대작의 산문을 쓰길 갈망했다. 그러나 성취되지 않아 2, 30년대를 지나 4, 50년대에야 실현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온 생애동안 장편을 기획한 것으로, 바로 《닥터 지바고》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닥터 지바고》는 출간과 함께 세계적인 스캔들이 된 작품이다.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발표되었으나 파스테르나크 자신은 혁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받아 조국에서 영영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작가는 결국 수상을 거절했다. 그는 반혁명분자였는가? 주변의 증언을 포함한 여러 근거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듯하다. 다만 그는 역사 속에서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밖에 없었던 소비에트 혁명을 넘어 자신만의 그 어떤 혁명을 꿈꾸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혁명 백주년을 기념하며 이 작품을 다시 음미해야 하는 이유다.



9.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슈킨 (유리 로트만 지음, 정지윤 옮김, 아카넷, 2018년 11월 27일출간)

로트만이 문화기호학의 관점에서 푸슈킨의 생애를 조명한 책이다. 시인의 삶이 그의 시대, 사회, 환경, 인물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대화 텍스트의 법칙”에 따라서 고찰된다. 니콜라이 치하 러시아 사회정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류사회의 생생한 묘사, 수많은 푸슈킨 동시대인들의 초상을 접할 수 있다.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시인의 삶, 아름다운 서정시와 경쾌한 문체의 산문 이면에 가려진 시인의 고통과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주변의 몰이해, 검열, 밀고, 감시, 억

압을 뚫고 자신의 작품세계와 삶을 개척해나가는 시인의 생애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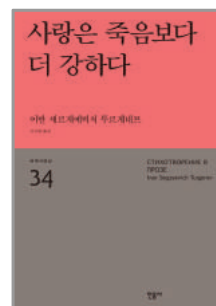


10. 『도스토옙스키』 (게리 솔 몰슨 외 10명 지음, 조주관 옮김, 우물이 있는 집, 2018년 10월 25일 출간)

케임브리지 대학 추천 도서 『도스토옙스키』는 도스토옙스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참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비평서이다. 이 책은 도스토옙스

키를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기존 이론에 참신한 시각으로 의문을 던진다. 이 책에 실린 주제들, 즉 과학, 심리학, 종교, 돈, 민족, 가족 등은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가장 명확하게 연구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소설을 초월한, 깨달음을 주는 예술이자 ‘형이상학적 외설’이 흘러넘치는 소설이며, 도스토옙스키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이른바 진지하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고급’ 이슈들을 접하고자 하는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저급’ 소설의 기법과 서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즉흥적 욕망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11.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지음, 조주관 옮김, 민음사, 2018년 11월 09일 출간)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가 번역 출간됐다. 투르게네프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산문시 83편 전편을 원어에서 완역했다. 자연과 여성심리 묘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러시아 제일의 문장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투르게네프는 언어의 장벽을 깨고 러시아 문학을 서구에 처음으로 소개한 작가이다.

문학적 경력을 시로 시작한 시인 투르게네프의 산문시집은

그의 말년에 창작된 것으로, 거장이 남긴 마지막 작품들이다. 투르게네프 특유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 그리고 환상적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길게 말하지 않고도 본질을 꿰뚫는 대가의 솜씨로 이 한 권의 시집에 완성돼 있다.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는 다른 어떤 외국작가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투르게네프 산문시의 쉽게 읽히는 시어와 거기에 담긴 삶의 지혜와 통찰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12. 『막심 고리키 다시읽기』 (뿌쉬깰하우스 엮음, 뿌쉬깰하우스, 2018년 10월 16일 출간)

이 책은 2018년 막심 고리키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고리키 전문가들이 발표한 13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막심 고리키는 20세기 러시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세기 초 외국문학의 한국 유입 시기에 가장 활발히 번역되고 연구된 작가 중 한 명이 고리키이다.

한국에서 고리키는 연극 「밀바다에서」, 장편소설 『어머니』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작가로서만 인식하고 있다. 실상 고리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작가로서 더 큰 문학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문학과 고리키, 고리키와 사회주의 혁명, 고리키 문학의 현대적 이해,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본 고리키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고리키의 작품 세계 및 최근 그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원고 모집

2019 『러시아 문화와 웃음』(가제) 원고 모집

▶ 20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아 우리 학회에서 펴낸 『예술이 꿈꾼 러시아 혁명』은 학회원들 간 연구 성과의 교류와 지식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획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러시아문학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기획연구를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러시아문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 문화와 웃음』(가제)이라는 기획을 제안합니다. 웃음이라는 주제를 폭발적으로 제시했던 바흐친에서부터, 『고대러시아와 웃음』(리하초프, 판첸코 등), 로트만과 우스펜스키, 『웃음의 철학』(카라소프) 등 러시아의 인문학자들은 ‘웃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러시아 문화와 웃음』은 이러한 ‘웃음’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에서 시작하여, ‘러시아적 웃음’에 대한 고찰을 이론적, 작품 분석적 맥락에서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러시아적 웃음’에 대한 이론적인 논문, 「도스토옙스키와 웃음」이나

「체홉과 웃음」과 같은 작가론 혹은 작품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기획은 2017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학회원들 간 연구 성과의 교류와 지식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많은 학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웃음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본 기획에 있어 학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저술방향

- 대중독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문화와 웃음에 대한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및 작가별 분석
- 러시아 문학에서 웃음을 창작활동의 원천으로 삼아 집필한 작가들을 선정해 그들 작품에서 나타난 웃음의 양상과 의미 분석
- 전문적인 학술적 분석보다 한국 대중에게 러시아 문학과 작가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흥미를 돋구어줄 만한 접근이 필요

- 한국어 번역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없을 경우 간단한 내용 소개와 실제 사례를 유려한 번역으로 제공하여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필
- 해당 주제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참고문헌 제시
- 각 원고는 원고지 100매 내외로 집필

▶ 투고 안내

-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주제와 관련한 논문 개요를 작성(A4 1쪽 이내)하시어 2019년 2월 28일까지 학회 메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9년에는 한국러시아문학회 30주년을 기념하는 30주년 단행본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 및 투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원고 모집’ 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4집 투고 안내

2019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4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논문 투고 규정

-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26장부터는 장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

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5만원, 비전임 5만원,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5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예금주: 이기주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8년 12월 15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2018)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8)

: 조주관 전 회장께서 작년(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회비 200만원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조주관 전 회장께서는 한국러시아문학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는 취지에서 특별회비를 납부하여 주셨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규환, 조주관, 정명자, 문석우, 최선, 이강은, 김정일, 전명선, 백용식, 변현태, 김정일, 석영중, 최성호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분(2018년 12월 15일 현재)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7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8년 12월 15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8년 12월 15일 현재)

강수경,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이상 11인)

▲ 연회비 납부(2018년 12월 15일 현재)

손재은, 신혜조, 이영준, 임수영, 최정은 (이상 5인)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18년 12월 15일 현재)

경북대학교 도서관

▶ 2018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8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총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